민주당 몰락했던 광주, 4년만에 상전벽해?…변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20대 총선 싹쓸이…오는 4월 총선서 민주당 '독식' 가능성도

"문 정부 성공 바라는 지지 높아"…안철수 귀국 따라 광주 민심 변화 있을 수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명절인사를 하고 있다.

야권의 심장부로 불렸던 광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의 최대 지지기반으로 바뀌었다.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호남, 특히 광주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의 후보들이 대부분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당선'이라는 불패 아성은 4년 전 깨졌다. 20대 총선에서 녹색바람이 불며 광주 지역구 8석을 국민의당이 모두 차지한 것이다.

이후 국민의당 분당과 국회의원 재보선 등을 거치며 현재 광주의 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대안정치연대 3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까.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이 높은 인지도와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 등을 바탕으로 대다수가 국회 첫 입성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수성'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총력전을 펼쳤던 4년 전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됐지만 결국 국민의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선됐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호남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도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이어지면서 현역들이 모두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와 남도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알앤써치가 지난 17~19일 실시해 22일 발표한 '21대 총선 광주·전남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이나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가상대결에서 대부분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전남매일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2~25일 조사한 '제21대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현역 국회의원들과 대결을 펼쳤을 때 야당이나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열세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 의석 싹쓸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이번 선거에서 문정부의 대한 심판보다는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이 주를 이루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광주 정치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반감이 커 현역들의 세대 교체 열망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싹쓸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4년 전 국민의당을 이끌었던 안철수 전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 복귀했고, 제일 먼저 광주를 찾았던 만큼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지역 정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하면서 과거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중도층 등이 집결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지만 안 전 의원이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종건 논란에 野 "더불어미투당"…與도 "엄중 대응"·선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與 "사적영역 검증에 한계…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野 "감성팔이 인재쇼가 결국 화 불러…인재(人災)였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가 28일 '미투(Me Too)'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남자'(20대 남자) 공략을 위해 영입한 인재가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검증단계에서 사적영역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당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해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나 관련 내용의 확인을 통해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출마 예상지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당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탈당, 제명 등 향후 원씨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사자와 피해자 추정 여성 간에 사실관계 다툼이 이뤄지는 상황이라 이후 진행과정,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본인의 소명만을 들은 상태여서 사실관계는 이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재영입 과정에서 이 문제를 몰랐느냐'는 질문에 "확인이 안된 것 같다"며 "앞으로 인재영입이나 공천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좀더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 범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씨가 민주당 영입 자격을 스스로 반납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인재(人材)인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인한 재앙 인재(人災)였다"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국당 몫 간사인 송희경 의원도 "민주당의 왜곡된 성인식이 인재영입 참사를 불렀다"며 "감히 더불어미투당이라고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씨는 조용히 떠나도 모자랄 판에 '한때 사랑했던 여성' 운운하며 끝까지 입을 놀렸다"며 "(영입인재) 반납이 끝이 아니다. 원씨는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상처만 주는 민주당은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성팔이 인재영입 쇼가 결국 화를 불렀다"며 "2년 전 이맘 때 끝없는 미투 논란으로 도덕적 이중성 문제를 겪었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치판을 교란시키며 국민 분노만 자아내는 감성팔이 인재영입 쇼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기자회견문은 참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인사를 버젓이 인재 영입이라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원씨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항간에 회자된 바 있다. 검증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뜻"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원씨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아무리 억울해도 흑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인재영입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